


농업 트렌드

농업·농촌 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환경 문제나 심화된 경쟁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동식물 등 농업소재·농업활동·농촌환경을 통해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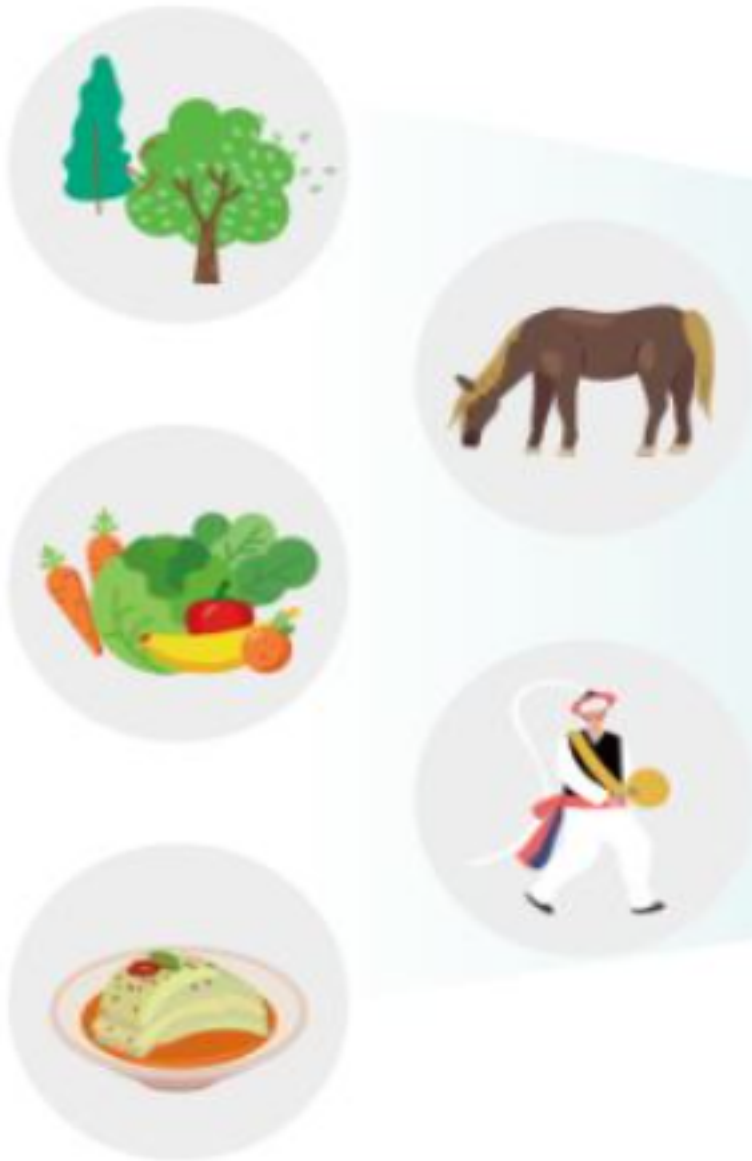
치유농업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농업과 차이가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국외에서는 치유농업을 사회적 농업, 녹색 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들 모두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치유농업 유형

농업·농촌지원



치유 서비스 유형

- 건강 치유
- 교육
- 사회적 재활
- 고용

서비스 제공 주체

- 치유농장
- 보건의료기관
- 교육기관
- 사회복지·재활기관

치유 대상

일반 대상

- 유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인
- 노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

- 문제행동 청소년
- 신체적 환자
- 사회심리적 환자
- 알코올·약물 중독자
- 장애인
- 수감자
- 실업자
- 소외계층
- 다문화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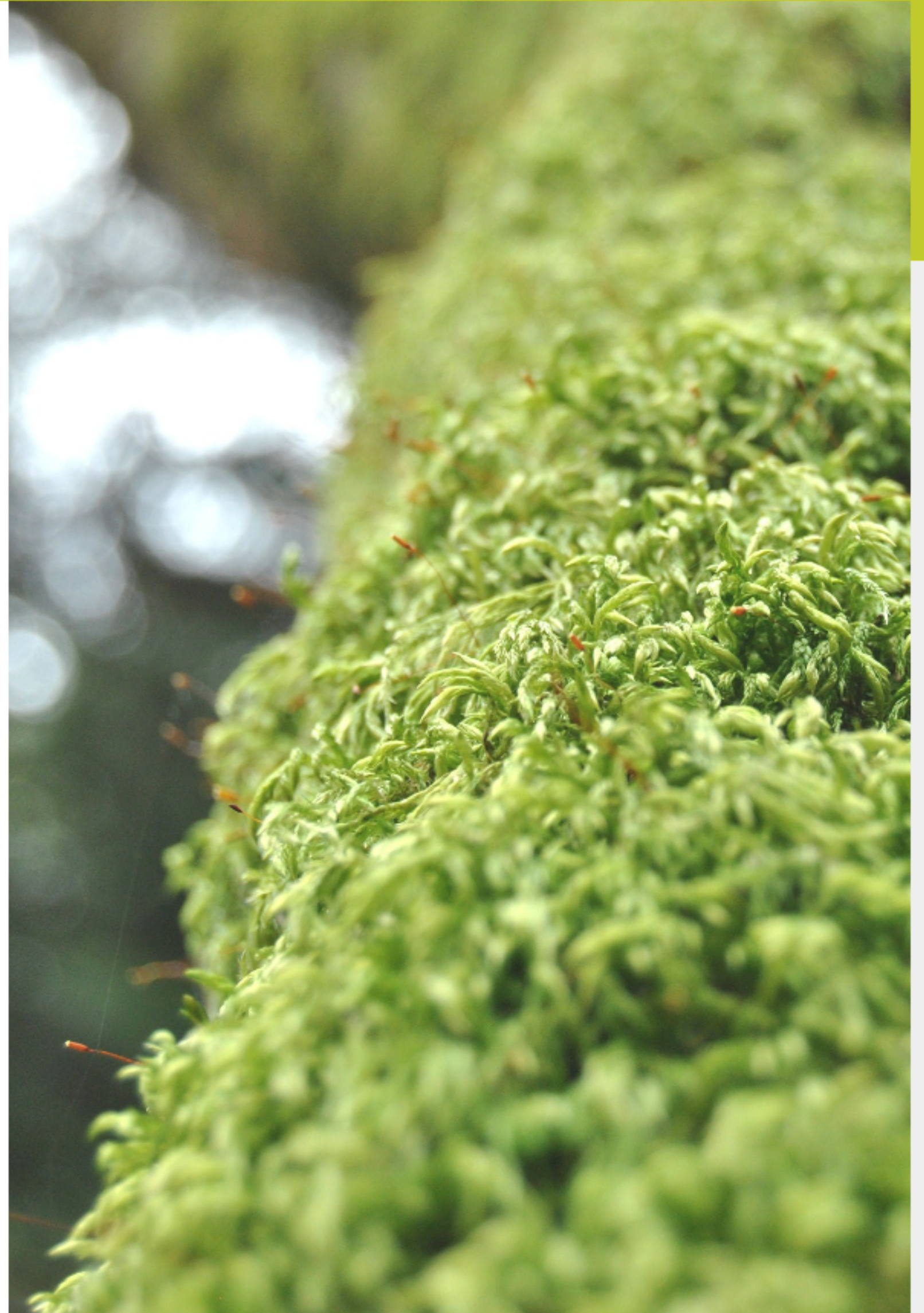
국내 치유농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Agro-healing)이라는 용어는 2013년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선진농업국의 녹색 치유농업 사례 및 효과 분석등의 연구를 진행,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용어를 정의하기 이전 1980년대부터 원예치유,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와 동물교감 치유가 개별적으로 발전해 옴)

우리나라 치유농장의 모습은 농업인, 협동조합, 병원과 의원, 복지회관, 건강증진센터, 시민농장 등 다양한 곳에서 복합적 치유의 기능을 활용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3.6.20.)'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의 근거법과 제도를 갖췄고, 또 전문 인력 양성과 자격관리제도, 치유농장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치유농업 참여자의 효과검증 연구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 치유농업 사례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의 치유농장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농업 법인체이다. 치유농장은 작물 농장, 채소 또는 꽃 농장, 축산 또는 낙농업 농장, 과일농장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같이 생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치유농장은 판매장, 양영지, 토끼 등의 소동물을 갖추고 있거나 경관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농장이 친환경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과를 제공한다. 또한 농장은 사회적 부대 시설, 노동훈련과 업무 등 농장과 관련된 것을 참가자에게 안내한다.

농장에서의 일, 즉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을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해 훈련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실현하고 내면의 안정까지 얻을 수 있다.

자료출처 농촌진흥청